

테크노세미켐, 영업이익 102% 폭증

3/4분기 85억6000만원 기록 ... 영업실적 호조에 안정적 사업구성으로

테크노세미켐이 3/4분기 영업실적 호조와 안정적 사업구성에 따른 성장성 부각에 힘입어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.

테크노세미켐은 코스닥에서 전일대비 2.6% 하락한 1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10월 중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저점인 1만3050원 대비 16.5% 상승했다.

테크노세미켐은 반도체 및 LCD 관련 소재 생산기업으로 특정업종에 치우치지 않는 매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안정적 사업구조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11월6일에는 3/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370억원과 85억6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.8%, 102.3% 증가했다고 공시했다.

동양증권증권 우준식 연구원은 “판매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2/4분기 대비 3%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부가가치제품 및 신규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다”며 “특히,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존 8년에서 6년으로 단축시킴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2/4분기와 거의 다름없는 23.1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고수익 구조를 입증했다”고 평가했다.

한국투자증권 민후식 연구원은 “LCD 산업의 회복추세와 신 클래스 사업의 조기 확대로 3/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각각 13.5%, 11.7% 웃돌았다”며 “신 클래스 사업은 2번째 라인이 가동되는 2007년 2/4분기 부터 성장이 배증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주장했다. <연합뉴스 - 무단전제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7>